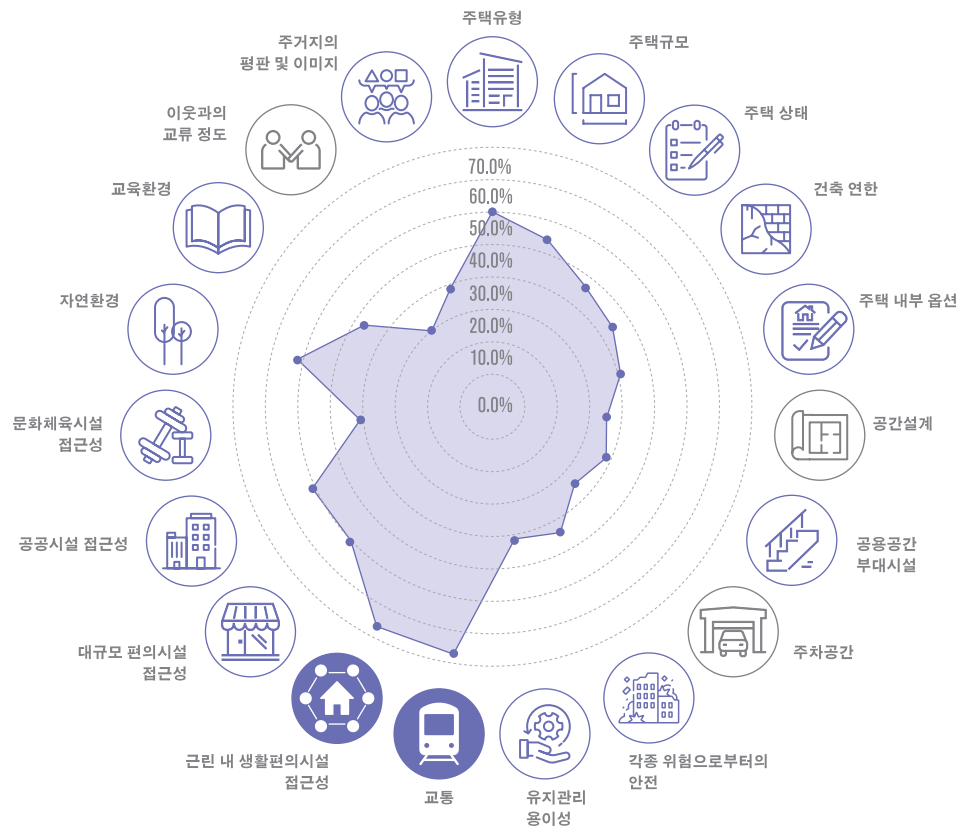


청년들이 포기할 수 없는 주거선택 기준은?

건축공간연구원은 청년들의 거주하는 주거생활공간의 현황과 주거선택 시 선호 및 포기 요인을 파악하고자 서울 및 6대 광역시 거주 청년(만 19~39세) 1,000명(청년가구주 600명, 부모 동거가구 400명)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. 조사는 2024년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로 실시하였으며, 통계자료실을 통해 조사 및 분석 내용의 일부를 소개한다.

Q 거주하는 주거생활공간에는 만족할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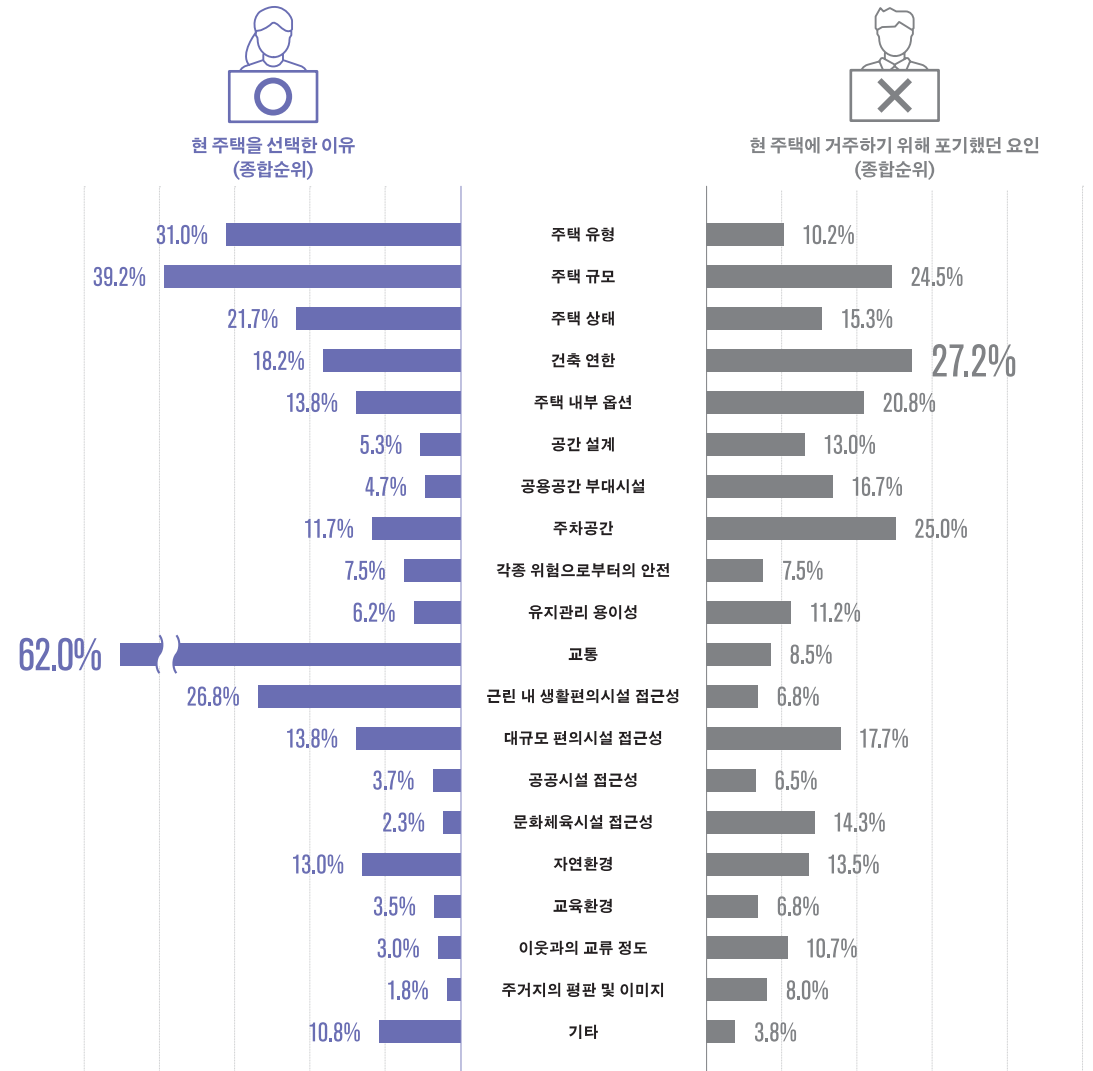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A 교통과 생활편의시설 접근성에는 만족

교통(66.4%)과 생활편의시설 접근성(64.9%)은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'이웃과의 교류 정도'(19.7%), '주차 공간'(25.2%), '공간 설계'(25.6%) 등에 대해서는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. 거주 주택유형별로는 오피스텔·도시형생활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수준이었으며 단독주택, 연립·다세대·다가구주택의 경우, 3점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.

Q 현재 주택을 선택한 이유와 포기했던 요인은?



A 교통이 좋아 선택했지만 낡고 작은 주택

현 주택을 선택한 이유로는 '교통'이 62.0%로 가장 높고, 다음으로 '주택 규모'(39.2%), '주택 유형'(31.0%), '근린 내 생활편의시설 접근성'(26.8%) 때문이라고 답했다. 반면에 현 주택에 거주하기 위해 포기했던 요인으로는 '건축 연한'이 27.2%로 가장 높고, 다음으로 '주차공간'(25.0%), '주택규모'(24.5%), '주택 내부 옵션'(20.8%) 등을 들었다.

주택 유형

아파트가 아니어도 괜찮다 82.2%
무조건 아파트여야 한다 17.8%
무조건 개별 주거여야 한다 86.8%
일부 공간을 함께 쓰는 공유주거도 괜찮다 13.2%

주택 규모/형태

주택 내부 구성 중 [방]은 꼭 혼자 써야 한다

부대시설 유무/상태

공용공간 및 주택 외부공간에
[주차장, 엘리베이터]는 꼭 있어야 한다

주택 내부 옵션

주택 옵션 중 [에어컨]은 꼭 있어야 한다

범죄, 재난 안전

안전한 주택으로
[외부인의 주택 내 침입에 대한
안전성]은 확보되어야 한다

안전한 주거지로
[밤늦게도 혼자 자유롭게 걸어도 될 수
있는 것]이 가능해야 한다

주택 노후도

14.1년 미만

구축이어도 괜찮다 82.8%
무조건 신축이어야 한다 17.2%

생활편의시설 접근성

도보 8.8분 이내

생활편의시설 중
[편의점, 1차병원]은 꼭 있어야 한다

사생활 보호수준

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93.0%
외부에서 우리집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연적 감시가 필요하다 7.0%

공원녹지 접근성

도보 11분 이내

공원에는 [산책로]는 꼭 있어야 한다

대중교통 접근성

도보 9.3분 이내

대중교통시설 중 [시내버스 정류장, 지하철역]은 꼭 있어야 한다

거점형 시설 접근성

차량 12.7분 이내

거점형 시설 중 [응급실이 있는 종합병원]은
꼭 있어야 한다

부동산 가치

주택 가치 상승 예상 지역 35.6%
부담 가능한 수준의 가격대 형성 지역 64.4%

Q 미래에 주거 선택 시 포기할 수 없는 기준은?

A 아파트가 아니어도 되지만 대중교통은 10분 이내에 접근 가능해야

‘아파트가 아니어도(82.2%)’, ‘구축이어도(82.8%)’ 괜찮지만 공유주택보다는 ‘무조건 개별 주거여야(86.8%)’ 하며 방은 꼭 혼자 써야 하고 ‘익명성이 보장되어야(93.0%)’ 한다는 개인적 영역성에 대한 의견이 매우 강했다. 또한 대중교통, 생활편의시설 중 편의점과 1차병원이 도보 10분 이내에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포기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.

직장과의 거리

집에서 직장까지 [최대 50분]까지 괜찮다

Q 포기할 수 없는 기준을 충족한 주택에는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나?

A 자가 3억 4,378만 원, 전세 1억 5,068만 원 등으로 살고 싶은 지역은 대도시

포기할 수 없는 기준들이 충족된 주택에 지불할 수 있는 평균 가격은 자가 3억 4,378만 원, 전세 1억 5,068만 원, 월세 보증금 2,079만 원, 월세 44만 원 수준으로 조사되었다. 이러한 자금은 본인이 마련하거나(79.2%), 정부나 지자체의 대출 자금(54.1%)을 통해 마련할 계획으로, 살고 싶은 지역은 서울 및 광역시 등 대도시라고 응답하였다.

정착하고 싶은 주택의 가격 정도

(단위: 만원)



자가 34,378
전세 15,068
월세 보증금 2,079
월세 44

자금 조달 방법

(단위: %)

